

제1회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

'기차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 정성화



- 부산일보 신춘문예 수필 당선
- 제24회 현대수필 문학상 수상

'객승' / 김광영



- 수필과비평 등단
- 제1회 민들레 수필문학상 수상

'정지선 굶다' / 문경희



- 문학도시 등단
- 제12회 동양일보 신춘문예 수필 당선

'경청' / 강중우



- 수필과비평 등단
- 부산수필과비평작가회 회장 역임

'반진고리' / 안경덕



- 수필과비평 등단
- 기술보증기금 문예 작품 대상

[심사평]

'부산수필문예'(제7호 및 제8호, 2010년)에 게재된 총 128편의 회원 수필을 '올해의 작품상' 대상으로 정하고, 예심과 본심 2단계로 심사하였다. 예심 심사위원 박종숙(수필가, 강원도수필문화회 회장 역임, 춘천) 및 하길남(평론가 수필가, 창원) 두 분이 각각 대상 수필의 작품성을 평가하여 10편씩 선정하였다.

본심에 넘어 온 작품은 모두 20편이었다. 심사위원 세 분이 장시간에 걸쳐 대상 작품을 정독하여 수필의 진정성, 문학의 완성도, 작가정신을 5-10점제로 평가하였다. 1차로 상위 세 작품이 선정되었다. '기차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정성화), '객승'(김광영), '정지선 굶다'(문경희)이었다. 이어 다음 순위의 동점 작품 네 편을 2차 평가하여 '경청'(강중우), '반진고리'(안경덕)가 선정

되었다.

선에 든 다섯 편의 작품에는 수필의 생명인 진정성과 몽클한 감동, 참신한 사유가 돋보였다. 무엇보다 맛깔스럽게 형상화 된 비유법으로 재치 있게 끌고 가는 문장이 독자에게 읽는 즐거움과 지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편 우리 시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시사성 있는 작품과 참신한 실험성이 돋보이는 좋은 작품들도 있었지만 선정의 한계로 모두 선에 넣을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올해의 작품상'을 받으시는 영예로운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 ▶ 예심 심사위원 : 하길남(평론가 및 수필가), 박종숙(수필가, 전 강원도수필문학회장)
- ▶ 본심 심사위원 : 정인조(본회 고문), 안귀순(본회 이사), 박양근(본회 부회장)

'2010 부산수필문인의 날'

● 행사내용

- 정기총회 및 부산수필문예 제7호/제8호 출판기념회
- '수필문학상' 및 '올해의 작품상' 시상식
- 수필가의 밤

● 일 시 : 2010년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6시

● 장 소 : 스타일웨딩 3층 라벤더홀 (부산역앞 구. 새마을예식장)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부산역 4번 출구, 463-3100

부산수필문인협회

- 연락처 : 회장 (010-9396-7703) 사무국장 (010-9517-5000)

풍요로운 가을이 서서히 깊어 가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회 주관의 '2010 부산수필문인의 날'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이에 문단의 여러 선생님을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0. 11. 1

부산수필문인협회 회장 최 홍 식

행사순서

- ▶(식전행사) 수필낭송 부산수필낭송회
- ▶제1부 · 총회 및 출판기념회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박봉옥 사무국장
 - 회장 인사 및 내빈 소개 최홍식 회장
 - 공로패 증정 회장
 - 경과보고 및 업무보고 사무국장
 - 감사보고 및 승인 조상영 감사
- ▶제2부 · '수필문학상' 및 '올해의작품상' 시상식
 - 축사 정영자 부산문협 회장
 - 문학상 운영 경과보고 황소지 문학상운영위원장
 - '수필문학상, '올해의작품상' 심사평 박양근 심사위원
 - 시상
 - 수필문학상 대상 및 본상 최홍식 회장
 - 올해의 작품상 정인조 고문
 - 수상소감
 - '수필문학상' 및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 성낙구 외 6명
 - 수상기념 사진촬영 수상자 전원
 - 축하공연 색소폰 연주
- ▶제3부 · 수필가의 밤
 - 만찬/간배 참석자/회장
 - 장기자랑 조상영 감사
 - 폐회선언 사무국장

대상 성 낙 구



- 1978년 현대문학 등단
- 부산문협 이사/감사/부회장 역임
- 부산예술상(문학분야) 수상
- 수필집 : '두렁콩 심던 시절' 등 8편

■수상소감/성낙구

충명했던 정신도 흐려지는 요즘인데 문학상이라니 너무 뜻밖입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의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상소감/심선경

'나'라는 이름의 껍질을 깨기 위해 참으로 많은 시간을 단단한 알 속에서 달그락그렸습니 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을 알고, 천둥과 번개와 먼지와 바람이 수없이 나의 경계로 들락거려 주었습니다. 글의 행간에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녹록치 않은 작업을 하며,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제 속의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 술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수필문학의 관문을 뚫고, 내 속에서 융화되지 못한 언어들을 퍼즐조각처럼 맞춰간 세월은, 소나기처럼 허공에 가장 빠른 길을 내며 지나갔습니 다.

세상과 만나기 위해 시작한 글쓰기를 통해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습니 다. 막무가내의 어둠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따뜻해지는 일이던지요. 미흡하고 어쭙잖은 저에게 이다지 과분한 상을 주신 부산수필문인협회와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미완성인 저를 향해 열려 있는 모든 길들에 감사하며, 수필을 향

본상 심 선 경



- 2002년 수필과비평 등단
- 영남여성문학회 회장 역임
- 부산수필과비평작가회 부회장
- 수필집 : '파로호에 잠긴 초록별을 낚다'

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문우님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심사평】

수필문학상은 부산 수필가의 문학적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부산 수필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수필문학상 심사는 이러한 취지에 염두를 두고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여 심사하였다. 대상 후보자는 3명, 본상 후보자는 3명이었으며 심사위원들의 자유토론을 거쳐 작품의 문학적성, 작가의 경륜, 부산지역 및 전국의 인지도, 작품집의 균질성과 최근의 창작활동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1차 독해를 거쳤다.

연이어 심도 있는 토론과 대표작 정독을 통해 대상으로는 작가의 연륜과 부산지역 문단에 대한 공헌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낙구 수필가의 <청운도 정열도>를, 본상 부문에서는 문학적 치열성과 참신한 수필 미학이 높은 심선경 수필가의 <파로호에 잠긴 초록별을 낚다>를 각각 만장일치로 선정하였다.

수상자의 창작 정신에 축하를 보내며 문학상에 응모하여 주신 다른 분들의 관심과 열성에 박수를 드린다.

- ▶심사위원 : 정인조 (본회 고문)
- 인귀순 (본회 이사)
- 박양근 (본회 부회장)